



# 보도자료

담당자 황인창 금융시장분석실장(3775-9043)  
 정성희 연구조정실장(3775-9024)  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4.10.10.(목) 09:00  
 매수 총 5매

## 보험연구원, 「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」 세미나 개최

2025년 보험산업, 성장성 둔화, 수익성 약화, 건전성 악화 전망  
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기반 마련과 사업모형 전환 필요

- 보험연구원은 10월 10일(목) 오전 7시 20분 「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」 세미나를 개최함
  - 보험연구원 황인창 금융시장분석실 실장은 「2025년 보험산업 전망」을, 정성희 연구조정실 실장은 「2025년 보험산업 과제」를 발표함

### 2025년 국내외 경제,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전환기 돌입

- 2025년 국내외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%에 근접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
  - 2025년 우리나라 경제는 고금리 기조 완화로 인한 설비투자과 민간소비의 증가세로 2.1% 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
  - 2025년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및 국제 유가의 안정으로 2.0%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, 주거비용 등으로 체감물가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음
  - 금리는 2024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말 장기국채(10년물) 금리는 2%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,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, 가계부채의 확대와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위험요인으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

2025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, 2024년 대비 2.4% 증가 전망  
생명보험 0.3%, 손해보험 4.3% 증가 예상

- 2025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건강 및 질병 중심의 보장성보험 증가와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.4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 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예상되나,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이 감소하여 0.3%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
  -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4.3% 증가할 전망이다
- 2025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감소로 전년 대비 9.2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
2025년 보험산업, 보험계약마진(CSM) 증가율 둔화 전망

- 보험산업의 보험계약마진(CSM)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24년과 2025년 증가하지만,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
  - 초회보험료 전망 등 CSM 변동요인을 고려할 때, 생명보험의 CSM 규모는 2024년 60.2조 원, 2025년 60.5조 원으로 증가율은 각각 3.3%, 0.5%가 될 것으로 추정됨
  - 손해보험\*의 CSM 규모는 2024년 67.7조 원, 2025년 69.7조 원으로 증가율은 각각 5.2%, 3.0%가 될 것으로 추정됨
- \*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추정함
- 단, 2025년 보험산업 CSM 규모는 신계약 성장률, 초회보험료 대비 신계약 CSM 배수, 유지율 등에 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됨

## 2025년 보험산업, 금리 하락 및 해지율 증가에 대응한 지급여력비율 관리 강화 필요

- 금리 하락 및 해지율 증가는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  - 금리 하락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  - 해지율 증가는 생명보험, 손해보험 모두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  - 단, 보험회사별 영향은 보험상품 포트폴리오, 자산 구성,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게 존재하여 일부 보험회사는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

## 2025년 보험산업, 성장성 둔화, 수익성 약화, 건전성 악화 전망

- 경영환경 전망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을 종합해 보면, 성장성 둔화, 수익성 약화,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
  - 성장성 둔화는 CSM 성장률 둔화를 통해 수익성을 약화시키고, 수익성 약화는 내부 자본조달 능력 약화를 통해 건전성을 악화시키며, 건전성 악화는 보장여력 약화로 성장성을 둔화시킴
  - 동 전망에 반영하지 않은 규제\*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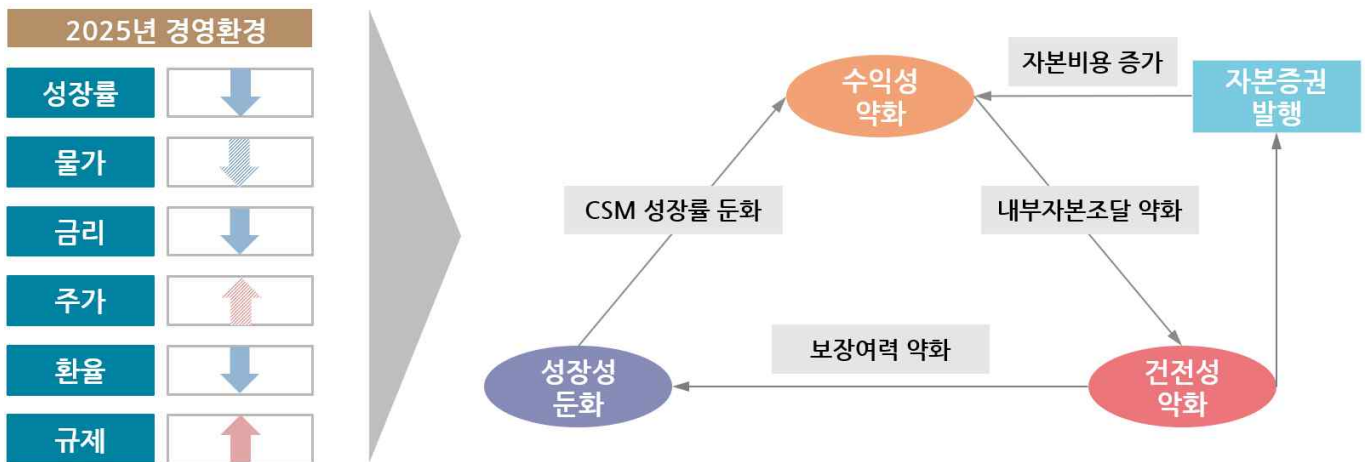
\* 할인을 현실화 방안 시행, 주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중

## 2025년 보험산업은 메가트렌드 변화를 기회요인으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과 사업모형을 전환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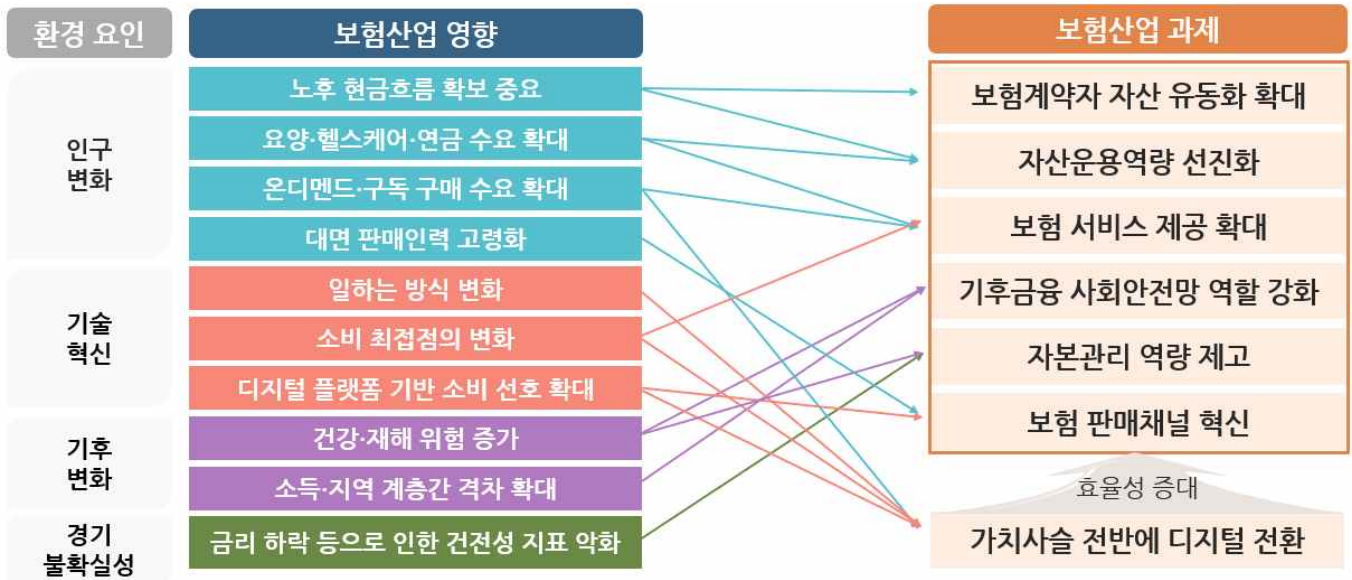
- 인구·기후·기술혁신의 가속화가 장기 경영환경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, 보험산업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도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모형의 확장성·역동성·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
- 통화정책 전환 및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성장성, 수익성, 건전성 하락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나, 보험산업의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됨
- (확장성) 노후 부양비 상승, 플랫폼 기반·경험 중시 소비성향 등에 대응하여 금융·비금융시장으로 사업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
  - 자산의 노후소득 전환 방안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, 생명보험금 담보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 및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주택연금 활용 검토
  - 노후 대비 자산형성 수요에 대응한 투자역량 강화 및 새로운 투자처 발굴을 통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강화
  -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‘보험의 서비스화’로 소비자의 효용 증진과 보험의 역할 확대
- (역동성) 판매인력·수수료 경쟁에서 소비자 중심의 영업 정책으로의 전환 및 대면 채널 전문성과 디지털 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·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- (지속가능성)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·건강위험 인수역량 확대 및 계층별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공·사협력을 통한 포용적 보험 역할을 강화하고, 경제·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선제적 부채관리 등 자본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<그림 1> 2025년 보험산업 전망



<그림 2> 2025년 보험산업 과제

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